번역학연구
2015년 여름 제16권2호

한국교회 설교통역의 특징에 대한 연구
－커뮤니티통역 및 국제회의통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 혜 인
(이화여대)

1. 서론

구어로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통역에 대한 연구동향을 보면 당초 국제회의통역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번역학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에 따라 사법통역, 의료통역, 공공서비스 통역 등 소위 커뮤니티통역에 대한 연구로 연구주제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역학 연구주제의 확대 동향은 기독교 환경에서의 교회통역 혹은 설교통역에 대한 연구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데에서도 나타난다.[1] 이처럼 설교통역에 대한 연구가

1) 설교 수화통역에 대한 연구는 1975년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구어로 이루어지는 설교통역에 대한 연구는 미미했다. 그러나 2010년 영국의 Jill Karlik의 설교통역관련 논문(Interpreter-mediated scriptures: Expectation and performance)이 국제학술지 *Interpreting*지에 수록된 것을 필두로 영국의 Jonathan Downie, 핀란드의 Sari

www.kci.go.kr

등장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유럽지역 이민자 인구 증가로 인해 설교통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한국교회에서도 설교통역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교회 설교통역에 대해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전화조사 및 설문조사에 따르면 3년 동안 1회 이상 공식 예배환경(통상 일요일 오전)에서 외국인 설교자의 설교를 한국인 통역사가 설교통역하는 상황이 발생한 교회는 조사대상 245개 교회 중 42개 교회(17.1%)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 인구 및 방문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신자를 위한 한국교회 예배의 동시통역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2)]

이처럼 설교통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설교통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본고는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설교통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설교통역을 개관하고 설교통역의 주요특징을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통역과 국제회의통역으로 대변되는 기존 통역유형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설교통역을 기존의 커뮤니티통역 및 국제회의통역과 비교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통역과 국제회의통역은 통역의 주요한 두 가지 유형으로서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Pöchhacker 2004: 13, Hale 2011: 343 등). 앞서 언급한 통역학의 연구주제의 확대 동향의 맥락에서 보면 설교통역을 커뮤니티통역의 일환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설교통역을 상세하게 분석해보면 커뮤니티통역에 속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설교통역을 기존 통역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설교통역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설교통역사에게 요청되는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나 설교통역사의 자질을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참고로 국외연구에서는 교회통역(church interpreting)과 설교통역(sermon interpreting)의 용어가 혼용되는 것을 본다(Hokkanen 2012, Downie 2015 등 참

Hokkanen 등의 설교통역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작성중에 있다.

2)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신혜인 2013).

www.kci.go.kr

고). 교회통역은 교회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역 모드, 즉 구어통역과 수화통역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구어통역의 경우 특히 교회 내 전문 통역부스와 장비를 동원한 동시통역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Hokkanen 2012: 291-292). 그러나 설교는 교회의 물리적 공간을 넘어 기독교 예배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설교통역을 '교회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설교에 대한 구어통역'의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설교통역의 개관

설교통역의 특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설교통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설교통역의 텍스트, 설교통역의 발생맥락, 설교통역의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설교통역의 텍스트

독일 스코포스학파의 카타리나 라이스(Katharina Reiss)의 텍스트 유형 분류에 따르면 설교는 광고, 홍보문과 더불어 어떤 원하는 행동을 청중 혹은 독자로부터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효과중심 텍스트'이다(Reiss 2000: 42). 즉, 설교는 일반 호소적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며 더 나아가 청자의 삶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설교는 강력한 도입과 결론의 사용, 질문 및 적절한 예화의 활용, 핵심적인 부분의 반복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법의 이용 등을 통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청중과의 공감대 형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일반 연설과 달리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를 목적으로 하는 '신앙적' 연설이다. 설교의 원천 텍스트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사상이 되는 성경 66권에 대한 것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다 (주성호 2001: 126).

한편 국내외 신학자들은 설교를 설명하는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상황'에 맞게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 전달된다고 설명한다. 설교는 언어적 내용과 커뮤니케이션 기법 못지않게 설교자의 인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www.kci.go.kr

(Kemper 1985: 17, 주승중 2006: 27 참고), 이는 일반인이 갖고 있는 성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자에 대한 기대와 마찬가지로 설교통역사에 대해서도 도덕적, 윤리적 기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혹자는 '통역설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교통역의 '설교적' 요소를 강조하기도 한다(김동조 2010: 26).

2.2. 설교통역의 발생맥락

설교통역은 개별 교회의 예배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교회연합으로 모이는 기독교 연합집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 설교통역은 모든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환경(예. 일요일 오전예배)과 더불어 비공식적 모임에서도 발생한다. 그 외에 기독교 관련 회의 혹은 집회, 기독교 세미나, 워크숍에서도 설교통역의 수요가 존재한다. 통상 설교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가 설교통역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된다.

2.3. 설교통역의 방법

설교통역은 통역환경과 통역서비스 수혜자 수에 따라 순차통역 또는 동시통역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한국교회에서의 순차통역을 살펴보면 초청된 외국인 설교자가 설교하고 이를 대다수인 한국인 청중을 위해 설교통역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설교통역사는 통상 설교자와 나란히 서서 청중이 보는 무대에서 설교를 단일방향으로 통역하고, 박진감 있는 전달을 위하여 문장대 문장으로 통역한다. 이러한 호소력 있는 전달을 위해 순차통역사는 언어적, 내용적 정확성과 더불어 몸짓, 표정, 시선처리, 목소리 등 비언어적 요소에도 충실히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교 순차통역의 특징을 오스트리아 통역학자 프란츠 푀히하커(Franz Pöchhacker)의 순차통역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푀히하커는 순차통역은 '전통 순차(classic consecutive)'와 '짧은 순차(short consecutive)'로 나누고 있다. '전통 순차'는 주로 단일방향으로 통역이 이루어지며 긴 발화를 듣고 통역하기 때문에 기억의 부화를 막기 위해 노트의 도움을 받아 통역한다. 이에 비해 '짧은 순차'는 커뮤니케이션 당사자간 대화를 통역하

www.kci.go.kr

는 경우로, 양방향 통역이 발생하고 노트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문장대 문장의 짧은 말차례로 이루어진다(Pöchhacker 2004: 1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설교통역의 순차통역은 '전통 순차'의 단일방향의 특징과 '짧은 순차'의 짧은 말차례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시통역의 사례는 주로 소수의 외국인 청자를 위해 한국어 예배를 동시통역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수도권 지역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인구가 많은 지방 도시에서도 설교 동시통역의 수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신혜인 2013: 198-199). 동시통역사는 교회 뒤편에 특별히 마련된 통역부스에서 통역하거나 기존 교회시설(예. 교회방송실)의 공간을 활용하여 예배 전 과정을 단일방향으로 동시통역하고 청자는 수신용 이어폰 혹은 헤드셋으로 통역을 청취하며 예배에 동참하게 된다. 교회 동시통역 환경은 국제회의통역과 매우 유사하지만, 2인 1조로 통역하는 국제회의통역과 달리 60분-90분간 진행되는 예배 전체 과정의 통역을 한 사람이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3. 설교통역의 특징

이하에서는 2012년 실시한 한국교회 설교통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4)]를 토대로 설교통역의 주요 특징을 1) 통역환경 및 통역사의 지위와 2) 통역사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통역환경 및 통역사의 지위'의 경우 커뮤니티통역과 국제회의통역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고 다음으로 '통역사에 대한 기대'는 설교통역이 기존 두 통역유형과 차별화되는 부분이어서 본고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 예배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은 설교이지만 그 외에도 대표기도, 설교의 성경본문 읽기, 찬양, 광고 등 다양한 예배 순서가 있다. 많은 경우 동시통역사는 교회의 요청에 따라 설교이외에 대표기도, 해당 성경 본문 읽기, 간증, 광고 등의 순서도 통역하고 있다(신혜인 2013: 231-233).

4) 설문조사 시점으로부터 3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정도의 기간이면 일반적으로 통역수요자인 교인 구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아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www.kci.go.kr

3.1. 설교통역의 환경 및 통역사의 지위

설교통역의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역방식에 따라 설교통역의 환경 및 통역사의 지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우선 순차통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설교통역의 경우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통역되는 만큼 보다 큰 청중 규모를 위해 통역하게 되며, 이때 통역사는 설교자와 같이 강대상에서 통역한다. 따라서 교회는 통역사 선정에 만전을 기하며 신학적으로 검증된 사람(예. 목사, 부목사, 전도사 등) 중심으로 설교통역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사 직분이 없는 일반 신자가 교회의 공식 예배에서 통역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청중 앞에서 가시적으로 순차통역하는 설교통역사는 대부분 남성이고 목사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설교자와 통역사가 모두 목사직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회와 일반신자는 통역사와 설교자의 관계를 종종 평등하게 인식하고 통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설교통역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동시통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설교통역의 경우는 대부분 일반 신자에 의해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순차통역사는 엄격히 선별하여 목사집단으로 그 조건을 한정하는 것과 달리 동시통역사는 별도의 선발제도 혹은 기준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고 확립되어 있더라도 언어능력과 기본 신앙심 점검만 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한국어에서 외국어 방향으로 통역되는 속성으로 인해 동시통역 서비스 이용자들의 규모는 작고 제한된다는 것으로 인해 순차통역과 달리 진입장벽은 낮고 동시통역사는 대부분 여성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통역사와 설교자와의 관계가 불평등한 것을 보여준다.

한편 통역방식과 상관없이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금전적 보상에 대한 부분이다. 순차통역이든 동시통역이든 교회는 설교통역사 사례비 지급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통역 텍스트와 환경이 비상업적인 만큼 자원봉사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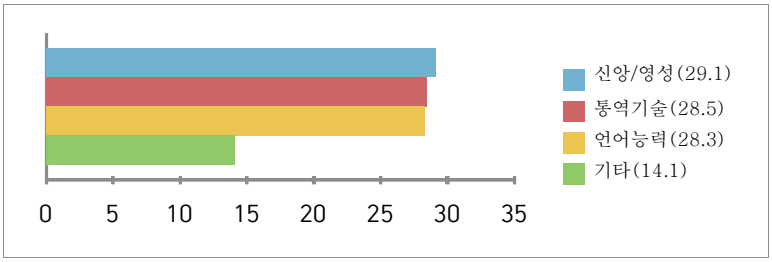
3.2. 설교통역사에 대한 기대: (준)설교자인가 통역자인가

설교통역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의 기대(user-expectation)를

www.kci.go.kr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 통역방식에 따른 상반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순차통역의 경우[5] 설교통역사의 자격요건의 중요도를 순위형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중시한 조건은 <표1>과 같이 '깊은 신앙 및 영성'(응답자의 29.1%), '순발력 있고 매끄럽게 통역하는 능력'(28.5%), '외국어 이해력 및 구사력'(28.3%), 기타의견(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역사의 신앙적 조건이 통역능력과 언어능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기타 의견(14.1%)에서는 '해박한 성경지식' 및 '소명의식과 열정'이 각각 4.7%, '모범적 생활'(2.2%), '자신 있는 목소리와 시선처리'(2.0%), '교회 직분'(0.4%), '해당 교회 출석기간'(0.2%) 순으로 구분되었다. 해박한 주제(성경)지식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능력(목소리, 시선처리 등)의 강조는 이해가 되나 설교통역사의 소명의식과 모범적 인격에 대한 거론은 일반 통역사 자질로는 상당히 생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1순위로 강조된 설교통역사 자격조건(%)



그러나 설교통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한 개방형 질문에서 보면 통역사의 인격이 강조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문항 중 통역사의 자격과 관련된 의견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 순차통역에 대한 인식조사는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6면 분량의 설문지로 2012년 10월-11월간 실시되었다. 교회 및 기독교 기관 4곳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총 530명이 응답하였으나 최종 분석대상자의 수는 495명이었다(신혜인 2013).

www.kci.go.kr

- 설교통역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단순히 통역사가 아닌 준설교자라 생각합니다
- 설교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단순 통역이 아닌 설교자의 마음가짐 가져주세요
- 통역사에 따라 설교자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느냐 죽은 말씀으로 만드느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역사분들의 사명을 기대합니다
- 통역사는 결국 말씀의 '통로'이다. 외국어 설교를 직접 이해 못하는 자들에게 설교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다
-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라는 사명의식이 필요하다
- 영적준비가 필요하며 몸가짐, 얼굴표정에 있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 통역자의 인격과 표정, 태도가 모두 설교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아쉬움이 남는 설교통역으로 기술한 의견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설교자와의 감정이 따로 일 때
- 감정 없이 딱딱하게 생동감 없는 통역에 치우친 설교
- 통역사가 무표정하고 열정 없이 그냥 통역할 때
- 설교자보다 통역자가 과한 몸짓으로 오버할 때
- 설교자는 열정적인데 통역자는 열정도 없고 제스처도 따라하지 않을 때 최고 힘들었습니다

설교통역사 직분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목사들이 담당해야 하고 "일반인이 통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는 입장과 "영성 있고 탁월한 통역자라면 직분이 상관없다, "직분은 중요하지 않으나 확고한 신앙은 필수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순차통역에서 응답자들은 설교통역사를 '준설교자'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식하고 설교통역의 설교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역중립성이 통역 목표로 설정되는 다른 통역유형(이지은 2011: 199-201)과 달리 설교통역에서 중립적 정보전달은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설교통역의 목표는 청자의 신앙의 강화 및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www.kci.go.kr

있고 이를 위해 설교통역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열정 없는 언어 중심적 통역이 아쉬운 통역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설교자의 비언어적 요소의 재현 역시 설교통역의 중요한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자보다 너무 적극적인 몸짓 역시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시통역 서비스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6] 청자들은 가장 중요한 통역기준으로 '원문내용에 대한 충실성', '발화의 논리력', '올바른 용어사용' 순으로 응답했다. 개방형 문항을 통해 제시된 청자의 의견에서 설교자 메시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성이 여러 번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응답자의 주요의견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Check pronunciation of English names of Bible characters (성경인물들의 영어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Interpreters should be familiar with content before, if possible. Should discuss message with lecturer and pastor before to maximize understanding (가능하다면 통역사는 사전에 설교 내용에 대해서 익숙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사전에 강연자와 설교자와 메시지에 대해서 논하여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 When possible interpreters should see the script ahead of time, but not rely on it during interpretation. Many pastors deviate from the script (가능하다면 통역사는 설교문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원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원고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 Should be knowledgeable about content and vocabulary as much as possible before interpreting. Be very acquainted with biblical terms and common religious expressions (통역하기 전에 가능한 한 내용과 어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용어와 종교적 표현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야 합니다).
- Keeping up with the speed of the preacher because sometimes the foreigner may understand a little Korean and when s/he gets the

6) 동시통역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시간 여유 없는 방문자의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설문지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2면의 분량으로 준비되었다. 설문조사는 2012년 10월-11월간 교회 및 기독교기관 6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54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신혜인 2013).

www.kci.go.kr

translated version long after the speaker has said it in Korean, s/he may feel disturbed and loses the track of the message (설교자의 속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외국인은 한국어를 조금 이해하는데, 설교자가 한국어로 이야기한 것이 오랜 시차를 두고 통역되게 되면 방해가 되고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동시통역 서비스 수혜자들의 의견은 충실한 통역을 위한 사전 교육 필요성과 언어적, 주제지식 및 용어적, 기술적 중요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시통역사들이 가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 설교통역의 언어적, 내용적, 통역 기술적 측면이 더욱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다. 동시통역은 연사의 발화를 1-2초의 시차만 두고 동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통역해야 하는 난이도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이미경 2013: 155) 많은 경우 교회의 동시통역사 선발 조건은 통역사의 통역기술이 아닌 신앙심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동시통역 품질 향상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설교통역은 통역방식에 따라 순차통역은 '설교'적 측면을, 동시통역은 '통역'적 측면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른 통역사 기대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4. 설교통역과 기존 통역유형과의 관계

위와 같은 설교통역의 특징을 토대로 전통적인 통역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4.1. 커뮤니티통역과의 비교

커뮤니티통역[7]이라고 명명되어 시작한 소위 비국제회의통역 연구는 이민자 인구 비율이 높은 유럽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정혜연 2008: 220). 커뮤니티통역은 공식 언어로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국가내

7) 국내외적으로 '커뮤니티통역'이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이 있다. 국내의 경우 학자에 따라 '커뮤니티통역' 혹은 '지역사회통역'으로 표현한다(이지은 2015: 90).

www.kci.go.kr

외국인을 위해 사회복지기관, 병원, 학교, 경찰서, 법원, 이민국 등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 서비스 성격에 따라 '공공서비스 통역(public service interpreting)'이라고도 하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신자간 대화를 도모하며 양방향적으로 통역하는 특성에 따라 '대화통역(dialogue interpreting)' 혹은 '리에종 통역(liaison interpreting)'이라고도 한다(Pöchhacker 2004: 13-15).

커뮤니티통역은 주로 순차통역으로 이루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통역장비 없이 제한된 수의 청자를 위해 일종의 동시통역인 위스퍼링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순차통역으로 진행되고 짧은 말차례로 통역분량이 짧기 때문에 정교한 노트테이킹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강지혜 2004: 107).

사회적 약자인 개인을 위한 비상업적 차원에서 통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역보수는 낮게 책정되어 있고 비숙련 통역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커뮤니티통역사에 대한 교육 시스템은 부재하고 통역사의 지위는 낮다.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커뮤니티통역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커뮤니티통역의 품질보장을 위해 최근 국제표준(ISO 13611:2014)이 채택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커뮤니티통역분야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비전문통역 인력이 대거 활동하고 있다(이지은 2015: 91-95). 이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식 언어에 상대적으로 능숙한 구성원이 긴급 투입되어 통역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나 통역이 의료, 법률 등 해당전문지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법원, 병원 등에서의 통역결과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통역사 훈련과 지위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학술적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Angelelli 2006, Rudvin 2007, Hale 2011, Mikkelson 2014 등).

설교통역과 커뮤니티통역을 비교해 보면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국가내 종교 조직에서 비상업적 성격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설교통역은 커뮤니티통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커뮤니티통역과 마찬가지로 문장 대 문장의 짧은 말차례로 통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트테이킹 없이 설교통역을 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설교통역은 커뮤니티통역의 특징인 양방향적 대화통역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단일방향적 연설문 통역과 유사하기 때문에 커뮤니티통역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www.kci.go.kr

4.2. 국제회의통역과의 비교

국제회의와 세미나, 심포지엄, 행사 등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제회의통역사는 동시통역사로도 알려져 있다(Pöchhacker 2011: 308). 지도층 연사를 통역하는 통역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연사와 동등한 선상에서 전문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통역사의 지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통역번역대학원은 대부분 국제회의통역사 양성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국제회의통역사를 위한 체계적 교육기관과 이로 인한 통역품질 보장 시스템이 있다.

국제회의통역사는 통역환경과 목적에 따라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을 고루 하게 되는데 일대일 지도층 인사의 회담이 아닌 이상 상당부분 연사의 발화가 단일방향으로 통역된다. 순차통역의 경우, 연사의 발화가 상대적으로 길고 통역단위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억부하를 덜기 위해 노트테이킹이 중요한 기술이 된다(최문선 2012: 254). 동시통역은 청중과 다소 떨어진 곳에 설치된 방음 부스에서 통역사가 들어가 헤드셋과 마이크 등 기기를 통해 연사의 발화를 큰 시차 없이 통역하고, 청자는 수신기 이어폰을 착용하여 통역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동시통역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2인 1조로 번갈아 가며 통역한다(정호정 2008: 184).

설교통역과 국제회의통역을 비교해 보면 설교통역은 국제회의통역과 마찬가지로 연사의 지위는 높고(국제회의통역에서는 지도층 인사 혹은 전문가, 설교통역에서는 목사) 이에 따라 연사 발화 위주의 단일방향으로 통역된다. 한국 대형교회에서 진행되는 동시통역은 국제회의 동시통역의 물리적 환경과 유사하여 설교통역사는 청중과 분리된 별도의 통역부스 안에서 설교자의 발화를 거의 동시에 통역한다. 한편 커뮤니티통역의 수요가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설교통역의 수요는 국제회의통역과 마찬가지로 비영어권에서도 나타난다.[8)]

8) 설교통역에 대한 연구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구어 및 수화 설교통역 연구자간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Church Interpreting/Bible Performance Research(CIBPR)'이 2014년 6월에 결성되었고 가입자는 필자를 비롯하여 30여명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국적을 보면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델란드, 터키, 라트비아, 루마니아, 레소토, 브라질, 일본 등 다양하고 대부분 자국

www.kci.go.kr

그러나 설교통역을 국제회의통역으로 구분하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설교통역사는 국제회의통역의 일대다 환경에서 일방향 통역을 노트테이킹 없이 문장대 문장으로 통역한다. 또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국제회의동시통역과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동시통역사는 비숙련 통역사인 경우가 많다. 외국 설교통역 사례에서도 한국 설교통역사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핀란드 교회에서 발생하는 설교통역을 연구한 사리 호카넨(Sari Hokkanen)은 교회에서의 동시통역은 국제회의통역과 마찬가지로 동시통역 부스에서 통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제회의통역과 유사하지만 통역사의 지위, 교육면에서는 커뮤니티통역 요소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설교통역을 전통적인 통역유형 구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Hokkanen 2012: 306).

5. 결론

이상에서 설교통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의 커뮤니티통역과 국제회의통역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통역환경 및 통역사의 지위, 통역사에 대한 기대 등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설교통역방법 중 순차통역은 국제회의통역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데 비해 동시통역은 오히려 커뮤니티통역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설교통역은 전통적인 통역유형인 커뮤니티통역과 국제회의통역의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설교통역이 갖고 있는 담화의 단일방향성 측면에서는 국제회의통역과 유사하지만, 짧은 말차례에서는 커뮤니티통역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교통역은 비상업적인 면에서는 커뮤니티통역의 성격이 있지만 개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보다 큰 구성체를 위한 서비스라는 면에서는 국제회의통역의 성격이 존재한다.

한편 커뮤니티통역과 국제회의통역이 갖고 있는 대표적이고 명확한 성질에

내 설교통역에 대해 학부, 석사, 박사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https://groups.google.com/forum/#!forum/cibpr).

www.kci.go.kr

비해 설교통역은 통역방식, 즉 순차통역과 동시통역에 따라 통역사 성별, 지위, 통역환경 등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설교통역내에서도 통역방법에 따라 통역사 성별, 지위, 전문성,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언어방향 통역과 관련 있는 청중 규모와 통역사 가시성으로 일부 설명할 수 있겠으나, 순차통역의 경우 설교통역사를 '준설교자'로, 동시통역의 경우 설교통역사를 '통역봉사자'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설교통역은 커뮤니티통역과 국제회의통역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곤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통역유형분류의 재성찰을 촉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3유형의 설정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두 유형과 구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3유형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지혜 (2004)『통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김동조 (2010)『통역설교, 당신도 할 수 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신혜인 (2013)『한국교회내 설교통역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미경 (2013)「동시통역 과정에서의 언어방향성과 생략」,『번역학연구』14(1): 155-179.

이지은 (2011)「사법인들과 통역인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관한 인식연구」,『번역학연구』12(3): 197-222.

이지은 (2015)「커뮤니티 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논의」,『통역과 번역』17(1): 89-124.

정호정 (2008)『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정혜연 (2008)『통역학 개론』, 서울: 한국문화사.

주성호 (2001)『21세기를 위한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www.kci.go.kr

주승중 (2006)『설교의 레노베이션을 꿈꾸는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최문선 (2012)「통역교육에서의 난이도와 난이도 요인」,『번역학연구』 13(5): 247-276.

Angelelli, Claudia (2006) 'Validating Professional Standards and Codes', *Interpreting* 8(1): 175-193.

Downie, Jonathan (2015 in press) 'Towards a Homiletic of Sermon Interpreting', *The Journal of the Evangelical Homiletics Society.*

Hale, Sandra (2011) 'Public Service Interpreting,' in Kirsten Malmkjaer and Kevin Wind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343-356.

Hokkanen, Sari (2012) 'Simultaneous Church Interpreting as Service', *The Translator* 18(2): 291-309.

Karlik, Jill (2010) 'Interpreter-mediated scripture', *Interpreting* 12(2): 160-185.

Kemper, Deane (1985) *Effective Preaching,* Philadelphia: Westminster.

Mikkelson, Holly (2014) 'Evolution of public service interpreter training in the U.S', *Public Service Interpreting & Translation* 1(1): 1-22.

Pöchhacker, Franz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Routledge.

Pöchhacker, Franz (2011) 'Conference Interpreting,' in Kirsten Malmkjaer and Kevin Wind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Oxford University, 307-324.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Manchester: St. Jerome.

Rudvin, Mette (2007) 'Professionalism and ethics in the community interpreting', *Interpreting* 9(1): 47-69.

www.kci.go.kr

[Abstract]

Sermon interpreting in Korean churches and its relations to conference and community interpreting

Shin, Hayn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licit distinguishable features of sermon interpreting in Korean churches and examine it in relations to conference interpreting and community interpreting,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on sermon interpreting in general.

With reference to the questionnaire survey of 2012 on users of both consecutive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mode (495 and 54 respondents respectively) in some of Korea's mega churches, the paper argues that while sermon interpreting shares some features with conference interpreting (e.g. one direction centered speech in one-to-many constellation) and community interpreting (e.g. short consecutive without note-taking), it also has some distinct features of its own. The paper highlights the two-fold working environments and user-expectations on the role of interpreters, largely manifested by interpreting modes.

This paper advocates that sermon interpreting, with its multi-faceted characteristics, cannot be fully categorized as either conference or community interpreting, and thus proposes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rpreting field in its own right.

▸ Key Words: sermon interpreting, conference interpreting, community interpreting

www.kci.go.kr

신혜인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동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hayneshin@hotmail.com
관심분야: 설교통역, 통번역교육, 번역사회학

논문투고일: 2015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5월 31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8일

www.kci.go.kr